

# 유전자정보로 실종아동 280명 가족 찾아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 등이 가족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만4526명이 유전자 정보를 채취·대조해 439명이 발견됐다.

보호시설 등에선 실종아동 1만 1411명과 지적장애인 1만9714명, 치매환자 301명 등 3만426명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실종아동 등 보호자 3100명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280명과 지적장애인 149명, 치매환자 10명 등 439명이 보호자와 만났다.

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1만9956건으로 전년(1만 9870건)보다 4.3%(86건) 감소했다. 2016년에 소폭 증가했으나 실종아동수는 최근 5년간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 1591건, 2015년 1만9428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은 지난해 39명 등 총 52명이다. 지난해 30일 기준으로 2013년 실종된 1명을 포함해 2014~2015년 2명씩, 2016년 8명 등이 아직까지 실종된 이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48시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장기 실종아동 수는 지금까지 588명이다. 20년 이상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동이 59.9%(352명)나 됐다. 실종 기간별로 10~20년째 찾지 못한 아동은 69명, 5~10년 17명, 1~5년 18명, 1년 미만 132명 등이다.

복지부는 2006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지정(2018~2020년 중앙임원원)해 실종 예방과 가족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호자 등의 이해에 지원 등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아동 358만1944명 외에 지적장애인 8만1048명, 치매환자 6만2581명 등 총 372만5573명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미리 등록해 실종에 대비하고 있다. 전체 등록 대상자(935만214명) 중 39.8%가 등록을 마친 상태다.

2014년 7월2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 접수 시 안내방송 등으로 경보를 발령, 자체 인력을 총 동원하도록 한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원'인 이른바 '코드아담'이 시행되고 있다.

## 총 3만4526명 유전자 채취·대조 439명 발견

### 작년 2만명...최근 5년간 미발견 아동 총 52명

지난달 말 기준 대규모 집포 678곳, 도시철도 226곳, 체육시설 176곳, 지역축제장 174곳, 유원시설 89곳, 공연장 81곳 등 전국 1601개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아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3월까지 아동 1만8955건 등 총 1만7254건이 발령됐다.

지난달 25일부터 휴대전화 위치 정보 외에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돼 실종아동 찾기에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해 10월24일 개정된 실종아동법 제9조 제2항이 시행되면서다.

그동안은 본인확인기관과 웹사이트 업체 등에 IP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면 영장 신청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범죄혐의 소

명이 어려워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공문만 있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아이를 찾지 못하는 가족의 마음 앞에서는 누구도 말을 잊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동 실종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또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는 한편, 가족들의 찾기 활동과 트리우마 치유 지원 등을 통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밥상을 뒤집으며 스트레스 해소 2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회 청년스트레스페스티벌'에서 한 학생이 밥상뒤집기대회에 참석해 밥상을 뒤집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

##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전두환씨 강제구인 법정 세워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광주 용봉동성당 주임신부는 27일 "전두환씨를 사법부가 강제구인 해서라도 법정에 세워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이날 뉴스스와 통화에서 "전두환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헬기사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당시 많은 사람이 총칼에 죽었다"며 "유가족들은 38년이 지나도 기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법의 심판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서는 것 자체는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을 해당 지역에서 심판받는다는데서 상당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전 씨를 강제구인 해서 제대로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인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5·18을 북한군의 폭동으로 훼손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다"며 "한 때 세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세우는 것은 일개 사범에 대한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을 푸는 것이다"며 "남동성당에서 38주기 5·18 미사를 할 때 전 씨를 광주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밝혔다.

조 신부는 5·18단체의 내부 분열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오는 9월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해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관

련 단체들이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광주시립들이 뽀뽀 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예정이던 전두환 씨에 대한 첫 항사재판은 7월16일로 연기됐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시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괴뢰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했다.

오월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스스

## 국고보조금 받아 챙긴 50대 2명 구속·입건

가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해 놓고 직업능력 훈련관련 국고보조금 5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5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교육시설 대표 A(51)씨를 구속하고 이사 B(5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9개월간 광주·전남·전북 150여개 사업장에서 1006회에 걸쳐 직업훈련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대리 수급하는 방법으로 5647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격훈련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B씨와 짜고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재원 고용보환기금)를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건설·디자인 관련 사업장으로부터 훈련 신청을 받은 뒤 아르바이트생을 사업장에 보내 대리 출석·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알려주었으며, 각종 규정(프로그램별 80% 이상 출석, 1인당 교재 2권 지급 등)을 어긴 뒤 '훈련을 수료했다'고 산업인력공단에 허위 보고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신봉우 기자

## 광양증마부두 정박 대형 운반선서 기름 유출

26일 오후 6시42분께 광양시 광양증마부두에 정박 중인 기름화학제품 운반선(827t급)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8척과 항공기 1대, 방제업체 1척 등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운반선 인근 300m 지점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이 해안가 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파나마 선적인 운반선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광양증마부두에 입항했으며 수리를 끝낸 뒤 시운전을 하던 중 엔진부에서 결함이 발생해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오피스텔서 경비원 2명 살해 20대 긴급체포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모(28)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60대 경비원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6일 오후 10시10분께 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파출소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자수했다.

경찰은 28일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키로 했다. 또 강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을 조사하면서 이날 밤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 인천 공원서 지인 살해 후 도주 40대 긴급체포

인천서부경찰서는 26일 협담을 한다는 이유로 멀다름 중 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노래방 업주 A(46)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6일 오전 1시55분께 인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유혹주점을 운영하는 B(46)씨가 자신을 협박한다며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서울로 달아났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5시간 만에 마포구의 한 길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멀다름 뒤 헤어졌다가 평소 차량에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